

### Enuma Elish

New England의 초월주의자 Margaret Fuller는 “나는 우주를 받아들인다.”라고 즐겨 외쳤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Carlyle은 비꼬아 말했다. “아무렴! 그러셔야지.”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 똥한 스코틀랜드인(Carlyle)이 옳다. 인간은 그 문제에 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인간 자신은 자신이 우주 안에 있으며 다른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든 우주와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실제로 문제가 아니다. 암묵적으로 인정되듯이, 그 문제는 인간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서사시 Enuma elish는, 우주와 타협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매우 이른 시기의,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본은 주로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의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언어는 그 당시 아카디아 언어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서사시가 좀더 일찍이, 즉 기원전 1000년대 후반 즈음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다.

중심 인물은 바빌론의 주신(主神) 마르дук이다. 그러나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 아시리아가 세계의 중심 세력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의 어떤 서기관이 마르дук을 자신들의 신 Ashur로 대체하였음이 틀림없으며, 그 새 영웅에 맞게 이야기를 몇 군데 수정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아시리아의 원래 수도인 Assur에서 발견된 판본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야기의 토대를 이루는 자료들은 시간과 발생한 장소에 있어서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신들의 계보의 기초가 되는 전승과 같이 수메르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위대한 신들의 목록인 An = Anum에서 나타나는 안(An)의 족보에서 더 자세하고 내적인 논리를 지닌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닌우르타(Ninurta)가 승리 후에 관개를 위해 동쪽에 산맥을 만들고 배열한 수메르의 닌우르타(Ninurta) 신화 Lugal-e의 희미한 메아리는 마르дук이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의 배경일 것이다. 또한 마르дук이 킨구(Kingu)를 재판하고 패배한 신들에게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닌우르타가 그의 포획된 적들인 돌들을 재판하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

구세력 신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신들이 춤추고 논 것의 모티프는 아카드에서 왔을 것이다. 이는 고 바빌로니아의 아트라하시스(Atrahasis) 이야기에서, 인간들이 소음으로 엔릴(Enlil)이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이 떠오르게 한다. 그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쉬에서 킨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해된 신의 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모티프도 가지고 있다. 압수(Apsu)와 티야마트(Ti'amat) 사건에 숨어있는, 부모살해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모티프도 마찬가지로 아카드에서 온 것이다. 이는 페니키아와 그리스에 퍼진 “두눔(Dunnum)왕조”라는 - 이는 헤시오드의 신 계보의 기초를 이룬다 - 꾸밈없는 신화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것의 변형된 형태는 히타이트에도 나타난다. 마르дук과 티야마트 사이에 일어난 전투의 배경이 되는 폭풍우의 신과 바다 신과의 전투는, 바알(Ba'al)과 얌(Yam)의 신화가 있는 지중해 연안의 우가리트(Ugarit)에서 알려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바빌론 제 1왕조의 아모리 인들과 더불어 동쪽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 The Story

#### 신들의 계보

이 서사시는 대충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짧은 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힘의 기원을 다루며, 좀더 긴 것은 현재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점차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태초에 첫 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물이 어떤 상태이었던지에 대해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위로 하늘이 아직 불려지지 않았을 때  
아래로 굳은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태고의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야마트가

하나로 그들의 물을 섞고 있었다.  
 때에, 높이 형성되지 않았었고  
 심도 찾을 수 없었다.  
 나타났던 어떤 신도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압수와 티야마트) 안에 신들이 생겨났다

이 묘사는 세계의 시초를 지하의 담수의 힘인 압수와 바다의 염수의 힘인 티야마트의 힘이 섞이는 물의 혼란으로 나타낸다. 다른 형태의 아무 것도 없었다. 심지어 위의 하늘에 대하여 생각되는 바도 없었고 아래로 땅도 없었으며 하나의 섬이나 높지도 없었고, 아직 신들도 없었다.

그리고 이 물들 가운데서 두 신 라호무(Lahmu)와 라하무(Lahamu)가 생겨났다. 그들이 압수에 의해 잉태되고 티야마트가 낳았다는 사실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태고의 대양에서 생성된 침적토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번에는 그들이 하늘의 둥근 가장자리와 이에 대응하는 땅의 둥근 가장자리 지평선인 안샤르(Anshar)와 키샤르(Kishar)를 낳았다. 안샤르와 키샤르는 아누(Anu)를 - 아카드어의 형태로 An, 하늘의 신 - 낳았고, 아누는 누딤무드(Nudimmud)를 낳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엔키(Enki)와 에아(Ea)라는 다른 이름으로 더 친숙하다. 그는 우리가 이미 봐 왔듯이 흐르는 물, 강들, 높지의 신이다.

라호무와 라하무가 나타났고 이름이 불려졌다;  
 해가 지나며 힘이 강해지며 커졌다.  
 그 후 안샤르와 키샤르가 만들어졌다.  
 부모를 능가하였다.  
 그들은 여러 날을 살았고, 햇수가 더해졌다.  
 그들의 상속자는 아누였는데, 그의 아버지들과 견줄 만했다.  
 안샤르는 그의 맏아들 아누를 그 자신과 닮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누는 누딤무드를 그 자신의 모습으로 낳았다.  
 누딤무드는 그의 조상신들 중에서 탁월했다.  
 귀가 크게 열렸고, 현명하며, 힘이 강대했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안샤르보다 강했다.  
 그의 형제 신들 중에 비길 자가 없었다.

여기서 인용된 이야기는 이미 언급했듯이, An = Anum이라고 불리는 탁월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의 목록에서 더 완벽한 원형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졌으며, 더 오래된 수메르의 신화들로부터 보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원래의 의미를 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기원들의 신비를 파악하려고 했던 깊은 생각은 분명히 어떻게 새로운 땅이 생기는가를 관찰한 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들에 의해 운반된 침적토에 의해 형성된 퇴적지형이다. 담수인 압수가 바다의 염수 티야마트로 흘러들어가고 그 침적토 더미 라호무와 라하무를 퇴적하여, 먼 시초부터 계획되었은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강 어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원형의 침적토는 태고의 대양의 가장자리를 따라 쌓여서 첫 지평선 안샤르와 키샤르를 만들었고, 그 후 그것이 점점 더 가운데를 향해 성장하면서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두 개의 큰 원반 An과 Ki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결국 그들의 아들 폭풍우의 신 엔릴에 의해 나누어진다. 그는 누딤무드, 즉 에아의 아버지이다.

우리가 보는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는 그 이야기를 두 측면에서 개정한 것이다. 첫째, 여기에 나타난 계보에는 하늘의 아내 키(Ki)와 그 아들 엔릴, 그리고 엔릴의 배우자 닌릴이 빠진 채, 아누, 즉 하늘의 신 안에서 본 서사시의 영웅인 마르둑의 아버지 누딤무드로 직접 넘어가도록 되어있다. 둘째, 이 서사시는 원래의 이야기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한다. 우주의 주요한 요소들을 - 지하수면, 바다, 지평선, 침적토, 하늘과 땅 등등 - 그 안에 있는 힘들과 하나로 다루는 대신에, 서사시는 이러한 사물의 “신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것은 신들의 계보를, 말하자면, 미완성된, 잠재력만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존재들의 창조, 즉 우주창조론은 훨씬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사적인 전쟁으로서의 신들의 싸움 : 무정부 상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성찰함에 있어 그들 국가의 자연에 나타난 물질적 기원을 관

찰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치 조직에 관한 기억과 경험은 우주 내부 질서의 기원에 관한 생각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바빌로니아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정치는 다양하고 불안정했으며, 부족적이고 도시적인 정치 형태가 다분했다. 이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것에서, 전체 회의에 기반을 둔 민주정, 혹은 반(半)민주정의 형태, 그리고 군주정까지 그 범위가 뻗어있었다. 계속해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바뀐 것과, 이 사람 저 사람이 최고위를 얻기 위하여 빈번히 시도한 것을 보아온 많은 사람들은, 사회 일반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권력을 획득하는 법에 대하여, 그리고 그 즉각적인 위험이 지나간 후에 현명하고 자비로운 통치로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는 법에 대하여 교훈을 얻었음에 틀림없다.

이 서사시에서, 단지 최고권의 추구에 성공하는 것의 결과로 세계질서가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시작은 반대되는 두 개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들, 즉 움직임과 활동의 힘들(신들), 그리고 완만함과 휴식의 힘들(더 오래된 세대의 세력) 사이의 갈등인 신들의 싸움에서 출발한다. 이 갈등에서, 권력이 혁신적으로 크게 집중되고 영구화되는 단계들이 잇따라 발생한다. 실질적인 무정부상태와 사적인 전쟁은, 공통적인 위협으로 인해 합의된 행동과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체 회의에서 선택된 임시 전쟁 지도자인 왕이 있는 초기 민주정에 자리를 내준다. 이것은 다시 단순한 생명과 재산의 일시적 보호를 훨씬 넘어선 관리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영구적인 군주정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신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원리인 움직임과 활동이 세상에 생겨났다. 새로운 세력인 신들은 휴식과 정지를 상징하는 구세력과 확실한 대조를 이룬다. 신화에서 전형적으로 그렇듯이, 극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조가 나타난다. 신들이 춤을 추려고 모이는 것이다.

신성한 형제들이 함께 모였다.  
그리고 재빨리 서로를 향해 발을 놀리며  
티야마트를 어지럽히고  
티야마트의 배를 휘저었다.  
춤을 춤으로써 그들은  
하늘의 토대 중심이 염려되도록 했다.  
압수는 그들의 소란을 억제할 수 없었으며  
티야마트는 그들 앞에서 침묵하였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그녀에게 시끄러웠고  
그들의 습관이 좋지 못했어도, 그녀는 그들의 응석을 받아주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이 붙어진다. 신들의 도전과 그들의 화나게 하는 새 습관들에 반응한 첫 세력은 압수였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압수의 시종 몹무는 그의 이름대로 *mummu* (“틀”, “모체”), 즉 “형태”의 본질이다. 그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유일한 형태인 원형적인 물의 형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이 거의 분명하다.

그러자 압수, 위대한 신들의 아버지가  
그의 장관 몹무를 부르고 말하였다.  
“몹무, 내 장관이여,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자야.  
와서 티야마트에게 가자”  
그들은 티야마트 앞으로 가서 앉았다.  
그들의 첫 아이들인  
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상의했다.  
압수가 그의 입을 열어  
고결한 티야마트에게 말했다.  
“그들의 습관이 내게 시끄럽게 되었소!  
나는 낮에는 쉴 수 없고  
밤에는 잘 수가 없소.  
나로 그들을 없애게, 그렇소, 내가 그들의  
버릇을 때려부수도록 해주시오.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우리가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이요.”

그러나 압수는, 사랑이 많고 고통을 감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대하고 있었다. 티야마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

었다.

티아마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다. 그녀의 남편에게 소리쳤다.  
소리쳤다. 마음이 아파서, 혼자서 분개해서.  
그녀는 속으로 악을 참았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을 파멸시킬 수 있겠어요?  
비록 그들의 습관이 시끄럽지만  
신의로 그것을 참읍시다!”

만약 몸무가 그 분쟁의 야기자들을 파멸시키자고 다시 소리 높여 촉구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압수에게 방해받지 않는 잠이라는 유혹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티아마트가가 꺼린 것으로 인하여 압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 나의 아버지여. 그 무질서한 버릇들을 제거해 버리세요.  
당신이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압수는 그로 인해 기뻐했고  
그의 얼굴빛이 밝아졌다.  
그가 자신의 아들들인 신들에 대해  
해악을 음모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팔을 몸무의 목에 감고  
그를 자신의 무릎에 미끄러뜨려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신들은 재빨리 이 음모의 소식을 접했다. 처음에는 그들은 소란스럽게 혼란하며 뛰어다녔고, 조용해진 뒤에도 두려움으로 말을 잃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단지 현명한 Ea는 그의 기지를 충분히 살려 반격을 생각해냈다.

최고로 총명하고, 숙련되고 유능한 에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들에게 맞서는 책략을 모색했다.  
그는 만들었다. 그렇다. 그(에아)는 그(압수)에 맞서  
모든 것을 구성하였다.  
강력하고 거룩한 주문을 숨씨있게 만들었다.  
에아는 그것을 암송했고, 압수는 물 속에서 조용해졌다.  
그에게 잠이 쏟아졌고  
그는 깊이 잠들었다.

압수가 마술에 넘어가 잠든 동안에, 에아는 그로부터 왕관과 불붙는 광선의 망토를 빼앗고 그를 죽인 후 그 위에 자신의 거처를 세웠다. 같은 주문에 정신을 잃고 멍해진 몸무는 감금되었고, 그를 단단히 붙들도록 코를 줄로 꿰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아마도 동시대인들이 들을 때만큼은 우리에게 즉시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더듬어내게 될 것이다. 에아는 주문, 즉 마술적으로 권위 있는 명령을 이용한다. 고대인들은 권위를 명령들 속에 내재하는 힘으로 여겼다. 명령 안에 있는 그 힘은 복종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에아의 명령에 있는 힘은 매우 강력하여, 그 안에 표현된, 그리고 “모든 것을 구성한다”고 할 때 암시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여전히 설득력 있는, 질서 정연한 줄거리이다: 압수는 지하의 담수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도록 하는 영원한 잠에 빠져든다. 바로 그 위에, 높지의 물위에 지어진 에리두에 있는 사원인 에아의 거처가 지어진다. 그는 “원형적 물의 형태”인 몸무를 통제하며, 따라서 액체 이외의 형태들이 생기도록 하면서, 현재의 세상이 다양한 형태를 지닐 가능성을 만들며 거기에 앉았다.

신들의 이 첫 승리가 전체 신들 공동체의 합의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진해 나선 단일한 신에 의하여 달

성되었다는 것을 주의하자. 신화는, 공동체에 닥친 위협이 그 구성원 중 더 강력한 한 신이 개별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대처되는 - 압수도 에아와 다를 바 없다 - 실제적인 무정부 상태의 사회 구성의 기본적 단계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전히 사적인 일인 것이다.

### 안전을 위한 임시 왕

에아가 압수 위에 짓고 그 배우자 담키나(Damkina)와 자리잡은 주거지에서, 그의 첫아들 마르독(이 신화의 진짜 주인공)이 태어났다. 시인은 열광적으로 그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의 체격은 강건하고,  
그의 눈은 섬광이 번쩍이는 듯 하고  
그는 다 자라서 태어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가장 강한 자라.  
그의 할아버지 아누가 그를 보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밝아져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다.  
그 자신의 신성과 같은 것을  
아누는 마르독에게 부여하였다.  
그는 매우 키가 컸고  
모든 면에서 다른 신들보다 탁월했으며  
그의 행동은 교묘하여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혼란되어 볼 수 없다.  
그의 눈은 넷이고, 귀도 넷이라.  
그가 입술을 움직일 때 불길기 타오른다.

어린 마르독의 할아버지 아누는, 할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손자를 매우 좋아하여, 어린 마르독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다.

아누는 네 바람을 낚아 생기게 하였다.  
그것들을 마르독의 손에 쥐어주며 말하였다.  
“내 손자야, 놀아라”  
그는 먼지를 만들어 남쪽의 폭풍이 나르도록 하였고  
파도를 일으켜 티야마트를 흔들었다.  
티야마트는 휘저어졌고, 밤낮으로 신들은 쉴 수 없었다.  
각 폭풍으로 인해 쉴 수 없어 고통하였다.  
그들 마음에 악을 계획하고  
그들은 어머니 티야마트에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 남편 압수를 죽일 때  
당신은 그의 편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네 개의 두려운 바람을 만들어  
당신이 배가 요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압수,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마음에 없었으며  
묶여진 묶무도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저기 휘저어져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들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 반감을 가진 신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티야마트의 편에 서있던 한 집단의 신들이었는데, 그들의 안달하는 불평은 효과가 있었다. 티야마트는 완전히 흥분하여 무시무시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들의 선두에 서도록, 그녀는 무서운 괴물 집단을 낳는다.

화를 내며, 음모를 꾸미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들은 싸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자처럼 격분하여 서성졌다.  
회의로 모여, 그들은 전략을 만들었다.  
모든 것을 만드는 어머니 후부르(Hubur : 티야마트의 칭호/역주)는  
대적할 수 없는 무기들을 추가로 만들고  
괴물 뱀들을 낳았다.  
사정보지 않는 독아(毒牙)를 지닌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몸에는 피 대신 독을 채웠다.  
그녀는 격렬한 용에 두려움의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찬란한 관을 씌우고  
그들을 신들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든 그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몸통을 들면  
몸을 되돌리지 않는다.

티야마트는 그녀의 군대를 이끌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남편인 Kingu를 택하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신들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기록하는 “법령의 서판들(tablets of the decree)”을 위임하였다. 그 서판들은 우주를 관장하는 최고의 권력을 상징한다. 젊은 신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은, 여느 때처럼, 기민하고 정보에 능한 에아에게 처음 전해졌다. 그는 이 위협이 압수의 것보다 얼마나 훨씬 더 심각한 것인지 깨달았다. 이번에는 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에아는 이 문제를 전해 듣고,  
어두운 침묵 속에 빠져들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그 내부의 동요를 가라앉혔다.  
몸소 그의 아버지 안샤르에게 가는 길을 따라  
그를 낳은 아버지 안샤르 앞으로 갔다.  
그에게 티야마트가 꾸미는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다.

안샤르는 이 소식을 듣고, 에아와 마찬가지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첫 생각은 에아를 그녀에게 보내 그만두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으나, 에아는 그녀에게 겁먹고 돌아왔다. 그러자 아누가 더 많은 권위를 부여받고 보내어졌다. 만약 그녀가 아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아누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명할 것이었다. 그러나 아누 역시 실패했다. 티야마트는 손을 그에게 불쑥 내밀어 그가 달아나도록 만들었다. 이제 신들은 그들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 그들은 희망 없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안샤르는 땅을 보며 침묵하였다.  
이를 갈았고, 에아를 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기기(Igigi)의 신들과 모든 아누나키(Anunnaki)의 신들은  
의회에 정렬하여  
입술을 다물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마침내, 안샤르는 젊은 마르둑을 생각해내고 그를 부르러 보냈다. 마르둑은 티야마트를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었으나, 한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그가 신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해야만 하며, 그가 최고 명령권을 가져야한다는 것이었다.

내 주여! 법령의 결정권이 있는 신들이여! 위대한 신들이여!  
내가 당신들의 수호자가 되어  
티야마트를 쳐부수고 당신들을 구하려면  
모여서, 내가 명하는 것이 최고 권위를 지닌 것이라고 선언하시오.

즐겁게 Ub-su-ukkinna(신들의 의회)에 함께 앉읍시다.  
내가 당신들의 대표자로서, 입의 말로 운명을 결정짓게 해주소.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내가 말한 명령이 파기되어서도, 철회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안샤르는 동의하였고, 라흐무와 라하무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고 그들이 의회로 오도록 전령을 보냈다. 겁에 질린 채 그들은 소집에 서둘러 응했다. 신들은 Ub-su-ukkinna의 뜰에서 만나서 서로 애정어린 인사를 나누고, 연회 자리에 앉아 계속 이야기했다.

그들은 떠들었고 연회 자리에 앉았다.  
빵을 먹고 검은 맥주를 마셨다.  
달콤한 음료가 그들의 두려움을 쫓았다.  
그들은 즐거워 노래를 부르고, 독한 포도주를 마셨다.  
그들은 근심이 없어졌으며  
매우 기분이 좋아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투사 마르독에게  
그들이 그 지위를 포고했기에.

그들은 마르독을 위해 왕자의 높은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앉아서, 그의 아버지들을 마주하여  
지도자의 지위를 받았다.  
“당신은 위대한 신들 중에서도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의 법령은 비길 데 없을 것이며, 당신의 명령은 아누의 것과 같소.  
마르독, 당신은 위대한 신들 중에서도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의 법령은 비길 데 없을 것이며, 당신의 명령은 아누의 것과 같소.  
오늘로부터 계속 당신의 명령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며  
지위를 높이고 낮추는 일이 당신의 권한 아래 있을 것이오.  
당신이 말한 것은 이루어 질 것이고  
당신의 말은 헛되지 않을 것이오.  
신들 중에서 누구도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오.  
신들의 자리에 대한 유지비는 당연한 것입니다.  
신들의 성소의 관리가  
당신과 더불어 안전하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신들이 전달한 것은 바로 왕권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왕권을 드리나니  
모든 것에 대한 권력입니다.  
의회 자리에 앉으시오.  
당신의 말이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기를 빼앗기지 않으며  
그 무기로 당신의 적들을 쳐부수기를 기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을 신뢰하는 자마다  
생기를 부여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신이 악을 품으면, 그 생명을 앗으십시오.

마르독은 이렇게 어떠한 신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승진시키거나 강등시킬 수 있는 확고한 결정권을 얻었다. 또한 이에 상응하여, 신의 사원들이 적절하게 돌보아지도록 확인하는 책임을 맡았다. 또한 그는 군사적 권한인 “왕권”, 전체의 명령권, 승리를 나타내는 무기들, 그리고 포로로 잡은 적들을 죽이거나 사면할 권한도 부여받았다.

마르독이 실제로 그들이 부여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신들은 성좌를 설치해놓고, 마르독이 그것을 파괴하는 명령을 내리고, 다음으로 그것이 다시 온전해 지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성좌를 그들 가운데 두었다.  
그리고 그들의 만아들 마르독에게 말했다.  
“오 주여, 당신의 명령은 진정  
신들 중에서 으뜸입니다.  
파괴와 축조를 명령하고  
이 둘 다 실현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말하는 말이 성좌를 파괴하도록 하고  
다시 말하여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는 말했다, 그의 말에  
성좌는 파괴되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성좌는 다시 세워졌다.  
그의 아버지 신들은  
그의 말의 힘을 보고  
즐거워하며 경의를 표했다. “마르독이 왕입니다.”

신들은 만족하며 그에게 왕의 기장을 주고, 그를 무장시키고는 서둘러 싸우러 나가게 했다.

그들은 그에게 활(笏), 왕좌  
그리고 왕복(王服)까지 주었다.  
그에게 적을 압도하는  
저항할 수 없는 무기를 주었다.  
“가서 티야마트의 목을 자르시오!  
그리고 바람으로 하여금 그 피를  
즐거움의 기별로 이 곳으로 가져오게 하시오!”  
그의 아버지 신들은  
군주의 지위를 결정하였다.  
그를 “안전과 복종”의 길을 택하도록 하였다.

이 문구는 틀에 맞추어진 것으로, 마르독이 공격 위협의 압박을 받는 신들이 양도한 비상 권력을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단지 복종하기만 한다.

마르독은 활과 화살, 철퇴 그리고 티야마트를 잡을 그물로 무장하고, 그 앞에 번개를 두고 자신을 타는 불꽃으로 채웠다. 폭풍우 전차에 올랐을 때 그가 만들었던 수많은 폭풍이 뒤를 따랐다. 이렇게 뇌우(雷雨)의 이미지로 그는 티야마트를 만나러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활을 자신의 무기로 설계하여 만들었다.  
그의 화살이 활시위에 굳게 채웠다.  
그의 오른손에 철퇴를 쥐고는  
그것을 들어올렸다.  
활과 화살통을 옆구리에 매달고  
번개를 그의 앞에 두었다.  
그의 몸이 타오르는 불꽃으로 타도록 하고  
티야마트를 포획할 그물을 만들어  
네 바람이 불들도록 하였다.  
그녀의 어떤 부분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남풍, 북풍,  
동풍, 서풍,  
그의 할아버지 아누가 준 선물들을



그는 그물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였다.

양 군대가 서로 마주 대했을 때, 마르독은 적군을 훑어보고, 그들의 지도자 키크가 당황하여 그 행동이 갈피가 없으며 그 조력자들은 마르독을 볼 때 눈이 두려움으로 흐려지고 있음을 알았다. 오직 티야마트만 제대로 서서, 먼저 마르독이 빠르게 탁월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찔하여 그의 정신을 흐트러려고 하였다.

그녀의 입술로 그녀는 감언이설을 내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오 주,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신들이 당신에게 그들의 자리를 넘겨주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모였었는데  
지금은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군요“

그러나 마르독은 속지 않았고, 완고하게 그녀의 거짓을 비난하였다.

주께서 그의 대단한 무기  
폭풍우를 들어올려  
비위를 맞추려는 티야마트를 향하였다.  
이렇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왜 속으로는 싸움의 신호를 보내면서  
겉으로는 달콤한 모양을 취합니까?  
아들들은 물러가버렸고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릇되게 행동하는데  
그들을 낳은 당신은  
당신 자손들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키크를 당신의 배우자라 칭하였고  
그에게 자격이 없는  
통치권을 결정하도록 임명하였습니다.  
신들의 왕인 안샤르에 적대하여  
당신은 해악을 찾고  
당신의 악한 의도를  
내 아버지 신들을 대적하여 드러냈습니다.  
진실로 당신의 군대들이 배설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든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나와 당신, 싸웁시다!”

압수가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했을 때, 젊은 신들은 뒤로 물러나야만 했고, 그들의 아버지들은 그들을 부당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머니인 그녀가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공격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는 그녀에 의해 완전히 무장된 군대 한 가운데 그녀가 서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것이다.

마르독의 도전에, 티야마트는 격분에 사로잡혀 고통을 치며, 분노로 몸을 떨며 공격했다.

티야마트와 신들의 수호전사 마르독이 교전(交戰)을 벌였다.  
그들은 한 전투에 영키어  
싸움에 뛰어들었다.  
주는 그의 그물을 펼쳐 그녀를 에워쌌다.  
그녀의 얼굴에, 그 뒤를 따라서  
폭풍우를 풀어놓았다.  
티야마트는 할 수 있는 한 멀리 입을 벌렸다.  
그녀가 입을 다물지 않도록  
그는 폭풍우 속으로 돌진하였다.  
격렬한 바람이 그녀의 배를 채우고

그녀의 내부가 충혈되었고  
구역질하면서 그녀는 그 입을 크게 열었다.  
그는 화살을 날려 그녀의 배를 가르고  
그녀 내장 부분을 갈라 자르고  
그녀의 심장을 깊이 베었다.  
그는 그녀를 단단히 잡아  
생명을 소진시켰다.

티아마트가 살해되자 그녀의 추종자들은 달아나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둑의 그물에 잡혀 무장해제 되고 갇히게 된다. 키크는 포박되고, 마르둑은 “법령의 서관”을 빼앗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그것을 봉인하였다.

#### 이익들을 위하여 계속되는 왕의 지위 : 우주

대적들에 대하여 안샤르의 승리를 확정한 한 후, 마르둑은 티아마트에게로 돌아와, 철퇴로 두개골을 부수고 동맥을 잘랐다. 그리고는 북풍으로 하여금 그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즐거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이러한 언급이 비에 대한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쉬면서, 그의 적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현명한 일들을 계획하였다. 그의 첫 교묘한 고안품은 우주였다.

그는 먼저 티아마트를 둘로 나누고 반으로 하늘을 만들고, 그녀의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빗장과 호위병을 배치하였다. 새로 만들어진 하늘을 가로질러 건물을 지을 지면을 찾다가, 그는 바로 에아의 거처인 압수가 아래에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여기서 먼저 압수의 모양을 주의 깊게 측정한 후에, 그는 그 자신의 소유지 에샤라(Esharra)를 그것과 똑같이 지었다. 그 이름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문에 나와있다. 마르둑은 다음으로 성좌를 만들고, 달력을 정비하고, 북극성을 배치하고, 달과 태양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는 달이 앞으로 나오도록 명했다.  
밤을 그에게 맡기었다.  
그에게 밤을 장식하도록 명하고  
시간을 재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달(month)을, 틀림없이  
그는 관의 모양으로 구분하였다.  
“초승들이 땅 위로 솟을 때  
너는 빨 모양을 하고 옛새동안 빛나라.  
일곱 째 날, 왕관은 반으로 보일 때  
보름의 기간이 짝을 이루는 한 쌍의 쪽이 되도록 하고  
두 반쪽이 각 달을 이루게 하라  
그 후 태양이 지평선 위에서 너에게 따라붙을 때  
점차로 기울어  
네가 찬 것과 거꾸로 될 것이다!”

마르둑은 바람과 폭풍의 현상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따로 남겨두었다. 아래에, 그는 티아마트의 머리 위에 산을 쌓았고, 그녀의 눈을 뚫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근원이 되도록 하였다.(아카드인들은 “눈”과 “근원”에 대하여 *inu*라는 한 단어밖에 없는데, 아마도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산을 그녀의 유방 위에 쌓았고, 그것을 뚫어 동쪽 산들로부터 티그리스로 흘러드는 강들을 만들었다. 그녀의 꼬리를 굽혀서 하늘로 올려 은하수가 되게 하였고, 그녀의 가랑이는 하늘을 받치는데 사용하였다.

하늘과 땅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을 때, 마르둑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법령의 서관”을 그의 할아버지 아누에게 선사하고, 그가 포획한 신들을 아버지들 앞으로 줄지어 지나가게 하였다. 티아마트가 만들었던 괴물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묶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은 참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마르둑은 그들의 조상(彫像)을 만들어 그의 아버지의 집에 - 에아의 집 압수의 대문에 - 항상 기념물이 되도록 세워두었다.

그의 아버지 신들이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안샤르는 그를 만나러 갔고, 마르둑은 왕으로서(즉, 전쟁 지도자) 평화와 안정의 상태가 도래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가 신들의 인사와 선물을 받은 후에, 마르둑은 목욕을 하여 전쟁의 때와 먼지를 씻어버리고, 왕복을 완전히 차려입었다. 그리고는 신들의 경의를 공식적으로 받기 위하여 알현

실의 왕좌에 앉았다. 그의 창은 “안전과 복종”이라는 그의 위임통치 지령을 따 이름 붙이고, 그의 옆에 어울리게 놓여졌다. 그 때 그의 부모 에아와 담키나는 신들에게 그가 더 이상 사랑하는 자식일 뿐 아니라 “왕”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모인 신들은 그에게 Lugal-dimmer-an-ki-a, 즉 “하늘과 땅의 신들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에게 충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사용하게 된 문구는 이전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티야마트의 죽음과 더불어 보호와 안전의 절실한 필요가 더 이상 그들이 복종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마르둑의 우주 창조로 인하여, 강력한 새로운 것이 생겼다. 그의 행정적인 유능함과 독창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바란 것이다. 그래서 신들은 그에게 왕에게 바치는 충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익과 복종”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그들이 마르둑에게 왕권을 주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이익과 복종”이라는  
문구를 선언하였다.  
“오늘로부터 당신은  
우리 신전의 부양자가 될 것이며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수행할 것이요.”

#### 이익을 위한 영구 자본 : 인간

마르둑이 신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것은, 그를 위해 영구적인 왕의 행정 중심지이자 그들이 의회를 위해 모였을 때 머물 장소의 역할을 할 도시와 집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영구함에 대한 표시였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빌론이 될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신들은 마르둑의 말을 듣고 누가 그를 도와 그가 만든 것의 관리 일을 할 것이며 그가 원하는 것을 수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그들은 더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신들이 바빌론으로 이주하여, 매일 들어오는 제물이 거기에 오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동안, 마르둑은 티야마트의 편을 들었던 신들을 관대하게 용서하여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건축 작업을 할당하였다.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들은 마르둑 앞에 엎드리어, 그를 왕이자 구원자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그가 원하는 집을 지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기꺼이 떠맡은 것은 마르둑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는 그의 두 번째 교묘한 고안품을 생각해낸다. 그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는 훌륭한 새로운 이익인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동맥의 매듭을 지을 것이고  
뼈를 만들어내어  
나는 태초의 인간을 만들어,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태초의 인간,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신들의 모든 노고를 부담시켜  
그들이 자유로이 숨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신들의 살 길을 숙련되게 처리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공처럼 함께 모입니다.  
그들로 돌로 나뉘게 합시다.

그의 아버지 에아의 충고를 들어, 그는 의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키크가 신들을 공격한 선동자이자 티야마트를 흥분시킨 장본인으로 기소되도록 한다. 그 후 키크는 에아 앞으로 끌려와 죽임을 당했고, 에아는 그의 피로부터 인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를 묶고, 에아 앞으로 잡아왔다.  
그에게 처벌을 가하여  
그의 동맥을 절단하였다.  
그리고 그의 피로부터 에아는 인류를 만들었다.  
인간에게 노역을 부과하여 신들을 해방시켰다.

이 작업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 작업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마르독의 교묘한 제안을 따라서  
에아가 창조하였다.

인간이 허드렛일을 하게 되어, 신들은 우주 전체의 많은 잡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서 마르독은 그들을 돌로 나누었다. 하나는 아누를 도와 하늘의 관리 일을 하는 신들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일들을 돌보는 집단이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지시를 하고 그들의 역할을 할당하였다.

감사하는 신들은 그들의 감사를 행동으로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손에 삽을 잡고 바빌론과 그 사원을 건축하였다.

아누나키의 신들이 팽이를 휘둘렀다.  
일년동안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다.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압수의 맞은 편에  
에사길라(Esagila/“머리를 높인’의 의미/역자)의 꼭대기를 올리고  
압수의 것에 상응하는  
지구라트를 지었다.  
아누, 엔릴, 에아, 그리고 마르독을 위해  
그들은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위엄 있게 그들 앞에 앉았다.  
그의 관의 뿔은  
에사라 신전(하늘)의 뿌리를 향했다.

#### 영구화된 왕 : 군주정치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마르독은 신들을 새로운 집에서 벌인 향연에 초대하였고,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천상과 지상의 직무들을 분배하였다. 위대한 신들은 회기를 시작하여 “운명을 결정하는 일곱 신들,” 혹은 더 나은 표현으로, 신들 모임의 법령을 최종적인 형태로 공식화하는 “법령을 내리는 일곱 신들”을 영구적으로 지명하였다. 마르독은 그의 활과 그물을 신들 앞에 두었고, 아누는 그 활을 보고 너무도 기뻐하여, 그 활을 양녀로 삼고 신들의 모임에서 그 형제들인 신들과 함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으로 아누는 마르독을 왕좌에 앉혔다. 신들은 그 앞에 부복하고 그들의 목에 물과 기름을 바름으로써 맹세하였다.(맹세를 어길 경우 목을 베라는 의미/역자) 그리고 그들은 마르독에게 영구적인 지위로서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그를 하늘과 땅의 영원한 주로 임명한다. 이것조차도 안샤르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그는 마르독에게 아술루헤(Asulluhe)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하고, 다른 신들도 그를 높이는 데 참여하도록 한다. 그는 마르독의 직무와 그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개설(概說)한다.

그의 주권은 탁월하며  
그는 어떠한 대적자도 없을 것이다.  
그는 그가 만든 검은머리의 사람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은 그의 방침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히 그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가 그의 아버지들을 위해  
많은 음식의 몫을 배설(排設)하도록 하라.  
그가 공물들을 확인하고  
신들의 성소를 돌보도록 하라.  
향기로운 향이 나도록 하여

그들의 지하 저장소로 즐거워하게 하라.  
그가 하늘에 행한 것에 응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검은머리 사람들로  
그를 예배하도록 시키도록 할 것이다.  
지배받는 자들은 주의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도록 하라.  
그들로, 마치 그들의 수호 여신의 말처럼  
마르독의 말에 주의하게 하라.  
음식의 몫이 사람들의 신들과 여신들에게  
가져와지도록 하라.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들이 신들의 국가를 뛰어나게 하며  
신들의 높은 자리를 만들도록 하라.  
그리고 각 신들이 검은 머리의 사람들에게  
잘 할당되도록 하라.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만큼 많이  
그는 우리의 수호신이다.